

학과: 국가안보학과

학번: 202010280

이름: 황태웅

전쟁기념관 견학 소감문

1. 서론

11월 14일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에서 전쟁기념관에 견학하였다. 전쟁기념관은 필자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라 필자에게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학과에서 단체적으로 처음 방문한 안보현장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기도 하였다. 전쟁기념관에 들어가기 전에 학과 단체사진을 촬영하였고, 들어간 후 탈북인의 특별 강연을 들었다. 필자는 처음으로 탈북인의 강연을 듣는 것이라서 기대심을 갖고 경청에 집중하였다.

2. 탈북인의 강연

탈북인의 강연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북한에만 있는 것’과 ‘북한에만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먼저 ‘북한에만 있는 것’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었다. 북한에서는 수령이 그들의 아버지이며, 신이며, 종교로 여겨진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세뇌교육을 계속 받으며 그들의 자유는 북한 체제로부터 억압받는다.

다음으로 ‘북한에만 없는 것’은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여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북한에는 시민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북한의 전반적인 부분을 걸림돌 없이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에 시민단체가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강연자분은 “북한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또 조직할만한 지식인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필자가 탈북인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정말 많고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 분단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전쟁기념관 탐방

탈북인 특별 강연 후 자유허간이 부여되어 몇몇 친구들과 전쟁기념관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물 2층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전시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6.25전쟁 당시 38가지의 사연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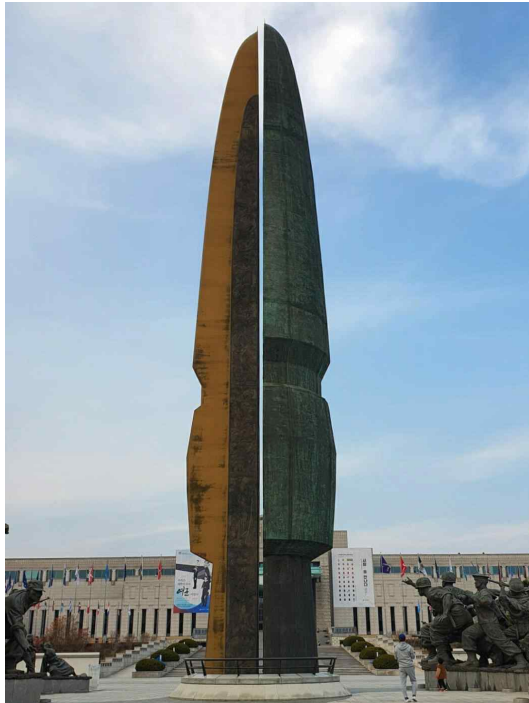
이 사연들 중 가장 기억에 남던 사연은 18번째 사연인 영국군 빌 스피크먼의 “나의 유해는 이곳 한국에 묻힐 것입니다.”라는 문구였다. 그 이유는 인연도 없고 연고도 없는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외국군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남침에 맞서 싸운 분들 중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았지만, 외국군도 역시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전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모든 외국군에게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존재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기여를 통해 피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다.

다음으로 갔던 곳은 3층의 해외파병실이였다. 여기서 필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은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남베트남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북베트남의 게릴라전을 쉽게 상대할 수 없었고, 남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이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나중에는 연합국이 철수하여 남베트남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만 했다. 남베트남은 북베트남보다 최신형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남베트남은 내부 분열과 전쟁 의지가 별로 없어 결국 북베트남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력이 많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독립과 통일을 위한 지도자와 국민의 일치하는 호국 의지라는 것을 느꼈다.

4. 글을 마치면서

전쟁기념관에서 탈북인의 특별 강연을 통해 북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사람을 만나다’라는 전시에서 화가 김성환의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라는 문구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트남 전쟁을 통해 호국 의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학과에서 안보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무산되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과에서 처음으로 안보현장에 견학하여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학과에서 안보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자주 오면 좋겠다.



18

나의 유해는 이 곳
한국에 묻힐 것입니다.

영국군 빌 스피크먼

